

# 중국, 완구 생산기업 1000곳 도산

## Guangdong에서만 922곳 쓰러져 ... 리콜에 코스트 상승으로 타격

세계의 공장인 중국에서 금융위기와 경영난으로 2008년에만 1000곳에 가까운 완구 수출기업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Guangdong성에 따르면, 2008년 동안 922개의 완구 수출기업이 도산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월17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Guangdong의 완구 수출기업은 2007년 3089개에서 2008년 2167개로 크게 줄어들었다.

또 완구 생산기업이 몰려 있는 Donggguan에서는 2001년에 4000개 이상의 공장과 2000개 이상의 공급기업이 있었으나 2년 전부터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원자재 가격 및 임금 상승, 위안화 강세 등으로 인해 제조코스트가 25% 이상 상승하면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완구 수출기업들은 유럽·미국의 안전기준 강화와 맞물려 제품의 리콜이 잇따르면서 큰 타격을 받았다.

엮힌 데 덮친 격으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수요마저 크게 감소해 기업들이 줄도산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2008년 Guangdong의 완구 수출액은 61억달러로 2007년에 비해 3.6% 증가했지만 성장률은 무려 1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1/19>